

# 충성대신보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사관생도의 신조  
 하나: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하나: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킨다.  
 하나:우리는 인내와 용기를 행함을 다한다.

## 제 204호

- 02 학교소식 이용환 소장, 제39대 학교장 취임
- 04 학교소식 청년인문공감 토론회 마련
- 06 생도광장 생도대대나무숲
- 11 오피니언 사회 저명인사칼럼
- 12 동문소식 동문(同門)의 소리
- 16 발전기금 발전재단 소식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이용환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최재호 /  
 편집담당 길진규 / 편집국장생도 오찬을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http://www.kaay.mil.kr)  
 204호 사진제공 및 편집: 상병 윤춘기, 일병 임은혁, 오세준, 채호준

# 이용환 소장, 제39대 학교장 취임

“미래 핵심인재 발굴과 양성 임무 중요...내·외적 변화와 혁신 통해 학교 발전시킬 것” 밝혀



“ 지난 11월 22일, 박인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 39대 이용환학교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학교장으로 취임한 이용환 소장은 3사 26기로 임관하여 육군본부 전투준비안전단장, 제36보병사단장, 육군훈련소장 등 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이용환 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병력자원의 급감이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학교에 부여된 미래 핵심인재 발굴과 양성이라는 임무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하라며 “내·외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학교를 발전시켜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충성대를 만들어가자” 고 밝혔다. 이임한 배현국 소장은 지난 4월 부임한 이래 정예장교양성을 위한 본질에 집중하며 학·군 및 민·관·군 교류협력 증진 등 학교의 외연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소령 한상미 ”

이용환(오른쪽) 신임 학교장이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부대기를 이양받고 있다.



## 김민식 준장(진), 제42대 생도대장 취임

지난 12월 4일 김민식 준장(진)이 제42대 생도대장으로 취임했다. 김민식생도대장은 3사 31기로 임관하여 제27보병사단 여단장과 참모장, 제2군단시령부 군수처장 육군전력지원체계사업단 사업계획과장 등의 직위를 역임하였다. 김민식생도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미래 핵심인재양성이라는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제41대 전임 생도대장 남진오 소장은 지난 11월 9일 제21보병사단장으로 취임했다. 주무관 길진규

김민식(오른쪽) 신임 생도대장이 학교장으로부터 부대기를 이양받고 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미래 핵심인재 양성”

### 학교 속작은 쉼터, '화랑도 통일정원' 준공

대한민국 통일과 수호의 염원을 담아 생도들의 인격 수양과 힐링을 위한 공간 조성



'화랑도 통일정원' 준공식 간 테이퍼커팅식

지난 12월 21일, 생활정원조성사업으로 '화랑도 통일정원' 준공식을 실시했다. 생활정원조성사업은 2019년 육군과 산림청 업무협약에 따라 군사시설 내 산림휴양공간 및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예산 200억 원으로 매년 전국 4개소의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육군본부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학교를 포함하여 4개의 사업지가 선정되었으며, 올해까지 육군에 총 10개의 생활정원이 조성되었다.

학교는 2022년 6월에 전군 사관학교 중 최초로 탄소중립 캠퍼스를 선포한 이후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군환경연구센터가 육군본부 공병실 환경과와 협업하여 생활정원조성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학교에 조성한 생활정원의 이름은 '화랑도 통일정원'으로, 우리 겨레의 친린한 신라 역사와 삼국통일의 주역인 화랑도의 기상을 주제로 대한민국 통일과 수호의 염원을 담아 조성한 정원이다.



'화랑도 통일정원' 준공식 간 기념식수

정원은 총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조성되었으며, 통일된 한반도를 상징하는 '한마음 통일정원', 김유신 장군의 호연지기를 담은 '호연지기 김유신 광장', 삼국시대에 정립된 가치인 풍류를 즐기기를 위한 '겨레의 풍류정원'으로 구성되었다. 군환경연구센터장 허지용 중령은 "화랑도 통일정원은 생도들이 신라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과 화랑들처럼 훌륭하고 지혜롭게, 조국의 버팀목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격 수양 공간이자 힐링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라며 정원 조성의 의미를 밝혔다.

정원은 총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조성되었으며, 통일된 한반도를 상징하는 '한마음 통일정원', 김유신 장군의 호연지기를 담은 '호연지기 김유신 광장', 삼국시대에 정립된 가치인 풍류를 즐기기를 위한 '겨레의 풍류정원'으로 구성되었다. 군환경연구센터장 허지용 중령은 "화랑도 통일정원은 생도들이 신라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과 화랑들처럼 훌륭하고 지혜롭게, 조국의 버팀목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격 수양 공간이자 힐링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라며 정원 조성의 의미를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제11회 충성대 리더십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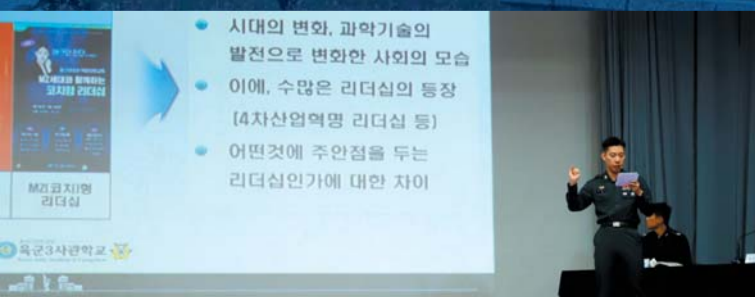
미래형 리더십 함양을 위한 생도 참여형 세미나 진행

지난 11월 17일 사관생도와 훈육요원들의 미래형 리더십 함양을 위해 제11회 충성대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 요구되는 리더십·인성'을 주제로 사관생도와 훈육요원 육군 리더십처, 공군 보라매 리더십센터, 국군간호사관학교 관계관 및 사관생도, 중앙대·경북대학교 교수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논제 발표 및 토론, 생도 참여형 세미나로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은 군 리더십의 최고 권위자인 육군 리더십처장 윤여표 이사관이 '전장리더십으로 바리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이어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최영진 교수가 '공부하는 군인이 잘 싸운다'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은 3사교, 간사교 생도 다섯 팀이 세미나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육군 리더십처와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 리더십 교관과 학교 교수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수준 높은 의견 개진과 피드백을 실시해 사관생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소령 한상미



'리더십 팔로워십, 정통성과 리더의 자질'의 주제로 생도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방문 및 군사협력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와 상호 사관생도 파견 교육 프로그램 등 군사협력 논의

6.25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참전용사 방문해 송고한 헌신에 감사 전달

학교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이하 프랑스 육사)를 방문해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한 상호 생도파견 교육 프로그램 등 군사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韓-佛 군사교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랑스 육사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됐다.

프랑스 육사 학교장소장 에르베 드 쿠레쥬는 "양국 사관학교의 교육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발전에 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육사 방문 전에는 프랑스 앵발리드 육군박물관과 6·25전쟁 참전용사막을 방문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쟁군사박물관인 앵발리드 육군박물관은 6·25전쟁 당시 중장에서 네 단계 낮은 중령으로 계급을 낮춰 참전했던 랄프 몽클라르(Ralph Monclar) 장군이 관장을 역임했던 박물관으로, 한국을 위해 헌신한 장군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프랑스 참전용사 세르주 아르상보 씨를 방문해 한국을 위해 참전해준 송고한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세르주 아르상보 씨는 6·25전쟁 당시 이등병으로 철의 삼각지 전투와 T-Bone 지구 전투에 참전했으며, 당시 착용했던 군복을 부산유엔 기념공원 내 평화기념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세르주 아르상보 씨는 "프랑스 국민들도 우리가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지 않는데, 한국의 장교를 양성하는 3사교에서 프랑스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용환 학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참전용사님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리고, 이렇게나마 작은 보답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 간 제반 경비는 학교발전재단의 지원하에 이루어졌다.

주무관 길진규



학교 및 프랑스 육사 관계자들의 기념사진



6.25전쟁 참전용사(세르주 아르상보, 사진중앙)방문 기념사진

## 고민 ·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 · 희망을 전하다



‘청년인문공감 토론회’에서 장병들이 그룹담당 멘토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있다.

### 근무지원단 · 교육지원대대 장병 대상 청년인문공감 토론회 마련

지난 11월 9일, 정신건강홍보 주간을 맞이하여 장병들의 고민과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청년인문공감 토론회를 실시했다. 청년인문공감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고민과 아픔에 대해 속고하고, 또래들과 토론하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강연, 오후는 그룹 토의로 이루어졌다. 오전에는 10년간 경도의 우울증 및 불안 장애를 앓으며 받았던 정신과 치료과정을 담은 에

세이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저자 백세희 작가가 ‘내 마음속 그늘, 우울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25개국에 출간되어 전 세계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다. 오후에는 용사 80여 명이 소규모 그룹을 구성해 그룹별 담당 멘토와 함께 일상의 고민을 나누고 상처를 치유하는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준비한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현미옥 보건간호담당은 “정신건강홍보 주간을 맞아 생명 존중 인식과 건강한 정신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해 장병들이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무관 길진규

## 박동휘 교수「사이버전의 모든 것」, 2023년 세종도서 선정



### 도서 ‘사이버전의 모든 것’ 전국 대학과 공공도서관, 공공시설에 배포

박동휘 중령(진) 군사사학교수가 집필한 「사이버전의 모든 것」 도서가 2023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추천 도서로 선정됐다.

세종도서는 양서출판 활성화와 독서문화 증진을 목표로 매년 교양 부문과 학술 부문의 우수도서를 선정해 발표하는 사업이며, 선정된 도서는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전국에 배포돼 독자들을 만난다.

2023년도 세종도서 교양 부문은 총 10개 분과, 84개 소분과에 걸쳐 1,682개 출판사에서 신청한 9,896종의 도서 중에서 최종적으로 550권이 추천도서로 선정되었으며, 「사이버전의 모든 것」이 그중 한 권이다.

「사이버전의 모든 것」은 2022년 3분기 국방부 진중 문고에도 선정된 도서로서 사이버전의 서막을 연 코소보 전쟁부터 사이버 세계대전을 촉발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이버전의 사례를 엄선해 분석한 책이다.

주무관 길진규

## 온정을 담은 장학금, 영천시에 기탁

### 충성제 기간 체험 부스 운영, 먹거리 장터 판매를 통한 수익금 등 직접 모아



생도들이 영천시 장학회(이사장 최기문)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학교 학생들이 작년 충성제 수익금 기부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뉘 귀감이 되고 있다. 60기 김현빈 생도 등 4명은 11월 28일 생도들을 대표하여 재단법인 영천시 장학회(이사장 최기문 영천시장)에 성금 160만 원을 기탁하였다.

이들은 충성제 기간 중 진행된 체험 부스 운영과 먹거리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130만 원과 6중대 훈육관(소령 최명호)의 개인 기부금 30만 원을 모아 전달하였다.

이날 기탁 행사에 참여한 60기 김현빈 생도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국민 덕분이 라고 생각하여, 그에 보답하고자 생도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누군가와 함께 온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다”며 소감을 전했다. 개인 기부금을 기부한 최명호 소령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생도들의 성금 기탁에 저 역시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령 최재호



# 병과학교 체험

59기 기자생도 김준호

병과 선정은 생도들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임관 후 진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선택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다. 임관을 앞둔 59기 생도들의 병과 선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던 중, 병과학교 체험을 가게 되었다.

병과학교 체험의 가장 큰 목적은 생도들이 다양한 병과를 경험하며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병과학교 체험을 마친 59기 생도들의 후기는 어떨까?

## 본인이 해당 병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생도(보병)** : 원래 군사경찰, 기갑 등 다른 병과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로가이 병과에 적합한지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떠오른 것이 보병이었습니다. 보병은 장교로 임관하는 생도 대부분이 선택하는 병과이고, 육군의 주력 병과이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보병 병과를 체험하며 3사관학교에 들어오기 전 장교가 되기 위해 다짐했던 초심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새로운 길을 열어두어 저의 병과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해소되기를 바랐습니다.

**B생도(정훈)** : 평소에 신문을 좋아해서 언론 활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훈 병과의 경우 대표적인 공보 업무로서 국가안보관, 정책에 관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평소에 국방일보를 정독하면서 정훈 병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C생도(병기)** : 병기 대다수를 정비, 수리, 개선하는 병기 병과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번 병과학교 체험을 통해 병기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었으며, 병기 병과의 미래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 각 병과에 대해 어떠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까?

**A생도(보병)** : 소대장들이 초급간부과정 이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보병학교인 상무대에서 기초적인 보병 훈련 및 계획에 대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 드론 전력화와 보병의 기계화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드론작전사령 부가 창설될 정도로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보병 교관님이 앞으로의 보병 병과 장교들은 드론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하여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보병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기갑처럼 차량화를 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B생도(정훈)** : 정훈 병과는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한국어 공부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훈 병과를 희망하는 많은 생도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 병과는 장병들에게 건전한 안보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할 의무가 있기에 당연히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밖에도 정훈 병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주력 학습 계획 등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생도(병기)** : 먼저 병기 병과의 경우 군의 중대형 장비들을 정비하고 개발하는 작업을 통해 육군의 전투력을 상승시키며, 해외 각지에 육군의 기술력을 알려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높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육군의 무기 K1을 다루는 장소로 가서 내부 설계와 배선 수리, 점검 등을 해볼 수 있는 실습 체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체험을 통해 군사 장비에 대한 지식과 조어가 조금은 더 깊어졌으며, 병기 병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병과학교를 다녀온 후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A생도(보병)** : 앞으로도 육군의 주력은 보병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병 병과가 가장 많은 인원을 장교로 양성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했던 드론 전력화나 보병 기계화처럼 육군의 다수가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의 경우, 대다수 장교가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프로젝트의 중추가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병과 선정까지의 시간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병과 체험은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B생도(정훈)** : 정훈 병과인 학교 교수님들도 공통적으로 정훈 병과는 인원이 적은만큼 인적네트워크가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어딜 가도 정훈 병과 소속 장교들과 친근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사회생활에 인적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 점에서 정훈이 큰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병과학교 체험을 통해 마음이 더 공고해졌으며, 올바른 정훈교육을 통해 많은 장병이 건전한 국가관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훈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C생도(병기)** : 이번 병기학교 체험을 통해 군사 무기를 다루는 병기 병과는 육군의 또다른 중추라고 느껴졌으며, 병기 병과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병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기뻐했으며, 나아가 병기 병과로 이전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 생도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영원한 제자

생도들은 교수님들의 영원한 제자다.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지만, 이번 학기에는 아쉽게 함께하지 못한 교수님들을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다. 반가운 표정도 잠시 저의 인색을 살피시며 "잘 지내나? 요즘 별일 없었어?"라며 넌지시 말씀을 건네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밥 잘 먹고 건강 챙겨가면서 쉬엄쉬엄해."라며 걱정 어린 덕담을 해주시는 교수님도 계셨다. 평범하지만 소소한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평소 계급이 높은 간부님이라는 인식이 더 커서인지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이번 기회로 직접 안부 문자를 남기게 되었다.

"충성! 교수님,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충성!"

## 늘 밝은 에너지의 소유자

3학년 때 처음 교수님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나 밝고 명랑한 교수님이 계시다니! 비뻔 생도 생활로 인해 생도들이 많이 피곤하고 어려워할 때면 항상 공감해주셔서 감사했고, 언제나 재미있는 이야기와 영상을 보여주시며 힘을 주셨고, 사랑으로 함께해주신 교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교수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임관해서도 교수님 생각하면서 주기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정저지와(井底之蛙)

우물 안 개구리. 흔히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 크게 보지 못하고 좁은 자신의 주변만을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는 어리석고 치기 어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최근의 여단과 같다고 생각한다. 생도의 자치제를 통해 앞으로의 지휘통제에 대해 연습하고 배워가는 사관생도들은 실무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생겨난 체제는 여단-대대-중대-소대-분대로 세분화되는데, 최근 여단의 인원들은 정저지와와 상태와 같다. 서로 가서로에게 집중하고 우월감을 공유하며 평생도에게 심한 말을 서슴지 않는다.

무턱대고 화내며 강압적으로 동기들을 몰아치기도 하고, 날카로운 언행으로 지도를 하며 본인은 여단에서 다 함께 정한 방법대로 지도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말을 한 모 여단의 장교 생도가 대표적인 예시와 같다. 조금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 여단이라는 우물 속에서만 서로를 바라보는 무지한 일은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 그대들에게 박수를

60기가 충성기초훈련을 마치고 충용관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61기를 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시간 단위의 정신없는 생도 생활과 선배 생도들의 계속된 지도로 힘겨운 1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한 점이 자랑스럽다. 덕분에 무사히 2023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선배와 후배 사이로 60기 후배들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따뜻한 말을 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정예 장교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대들에게 선배로서 박수를 보낸다.

## 체력측정, 이대로 괜찮을까?

3학년 생도들은 내년 외출, 외박이 걸리고 4학년 생도들은 임관성적이 걸린 중요한 체력 측정일이 다가왔다. 선·후배 할 것 없이 준비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런데 센서측정이라는 것이 사람의 신체 구조에 따라 똑같은 자세여도 측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측정 시작 전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몸에 알맞게 조정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시간에 쫓겨 제대로 조정하지 않은 채 시작해버리고 인정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서 교수님들께 말씀드리면 센서는 문제 없다는 냉정한 말만 돌아온다.

측정 때마다 까다로워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센서로 보는 체력측정, 이대로 괜찮은 걸까?

## 든든한 인생 선배

고민이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훈육대장, 훈육장교님. 고민도 잠시, 나는 오늘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린다. "충성! 훈육관님, OO과 관련된 고민으로 상담받을 수 있을지 연락드립니다." 물론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나 환영"이었다.

손수 내려주시는 차는 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따뜻해진다. 사소한 고민부터 조금은 민감한 주제까지 어떠한 주제든 훈육관과 생도의 관계를 넘어 인생의 선배로서 진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어느새 고민은 실타래 풀리듯 풀린다.

"오늘도 생도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훈육관님, 그리고 훈육장교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생도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시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 샛길

학교에는 PX 옆길로 통하는 샛길이 있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이용해온 그 길이 최근엔 안전상 지침상의 이유로 금지가 되고 이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겠다고 여단에서 선포했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A생도 : 생도들이 샛길을 이용하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길을 이용하고 있는 생도들이 있는데 전부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단C생도 :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합니까? 저희가 못 봤으니까 어쩔 수 없죠.

A생도 : 그러면 임시로 삼각콘이나 팻말로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못 빠져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데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겁니까?

여단C생도 : 설치하는 저희 권한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24시간 감시도 못 하는데 어쩔 수 없죠.

A생도 : 여단에서도 그 샛길을 이용하는 것을 본 생도가 많은데 그건 왜 처벌이 없습니까?

여단C생도 : 그건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처를 한 후 여전히 조치사항은 물론이고, 임시방편마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자신이 내뱉은 말도 지키지 못하는 생도가 어떻게 소대장이 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 ▶ 한번 동기는 영원한 동기!

2년 동안 함께 울고 웃고 때론 부딪치기도 하고, 영원히 안 볼 것처럼 싸운 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쁜 동기가 있으면 소리 없이 걸로 와 학과백을 들어주던 동기, 당직인 동기가 있으면 식판에 밥을 채워 미리 받아주던 동기, 과제나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서로 알려주고 함께 나누는 동기. 모두 59기 동기들이었다.

“너희들을 만나 처음과 끝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어. 야전에 가서도 종종 연락하고 지내자!”

## ▶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이 있다. 특정한 관직이나 위치에 오르면 그에 걸맞는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누구나 노력하며 발전한다. 하지만 특정 직책을 가진 생도들은 자신의 할 일을 미리 하지 않고, 외박을 나가 놀다 온 뒤 동기, 후배 생도에게 1~2시간의 여유시간만 주고 압박하며 일처리를 강요한다. 이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본다면 항상 하는 말인 '나는 몰라',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등의 말을 통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당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 ▶ 신독

사관생도로서 신독을 지키며 정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신독은 타인의 시선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양심에 맞게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정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는 생도로서 금해야 하는 3금 제도와 맞물리는 톱니바퀴 같은 존재인데, 현재 우리는 신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1년이란 시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3학년은 1년간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을 맞이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하며, 4학년은 2년간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자신이 3금 제도를 비롯한 규칙을 어긴 일이 있다면 반성하고 어긴 일을 회피하려 허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덮고 다른 중대로 도망가려고 하는 등의 비겁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 ▶ 군인 만들기 프로젝트

총이라는 사회에서 비비탄총만 만져봤던 인원들을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교관님들과 조교님들에게 감사하다.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동안 감사한 말을 전하지 못했으나, 이번 기회로 따뜻한 말을 전하고 싶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 생도들에게 사소한 것까지 지식을 알려주시고 체득할 수 있게 도와주신 교관님, 조교님. 생도들을 위해 많은 부분에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61기 사관생도들에게 바라다!

60기 기자생도 배 광 진

2024년까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다. 59기, 60기 생도들의 충성기초훈련 준비가 한창이다. 각 충성기초 지도생도들은 61기 생도들에 대한 올바른 훈육을 위해 생도대 훈육관들로부터 올바른 인성 및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있다. 충성기초훈련 간 이상적인 훈련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61기 생도들이 충성기초훈련 생활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알차게 보내기를 희망하는 선배 생도들이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59기 생도들이 바라는 점

이제 곧 임관한다는 사실에 얼떨떨한 상태입니다. 좋은 말, 멋진 말을 해주고 싶지만, 59기 생도들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성격도 아니거니와 이제 들어오는 후배 여러분에게 크게 외달지도 않을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선배의 입장에서 가볍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2022년 1월, 충성기초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낯설고 힘겹게만 느껴졌기에 퇴교를 고민하던 생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겨냈기에 이 자리에서 임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후배분들도 같은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기혼생활이 힘든 만큼,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기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를 지금까지 있을 수 있게 해줬던 건 동기들 서로 간의 따뜻한 한마디, 따끔한 한마디였습니다.

충성기초훈련만큼은 무조건 혼자서 해내려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건 도움을 받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알려주며 서로 돕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간의 생도 생활을 하며 가장 길게 느껴졌던 기간은 충성기초훈련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짧게 느껴졌던 기간도 충성기초훈련이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답답하고 버겁지만 한 상황이 우리를 시간 속에 가둬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훗날 지나고 나면 가장 빠르게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란 듯이 가슴 한쪽에 찡하게 남는 추억의 조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던 각자의 다짐을 가진 채로 건강히 훈련을 마치고 이곳 총용관으로 당당히 건너오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선배 생도들은 후배 생도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60기 생도들이 바라는 점

우리 60기들은 먼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에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도 군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1년을 보냈습니다. 후배분 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합니다.

충성기초훈련은 많은 체력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나만 체력이 안 되고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며 한층 더 성장하는 과정이 충성기초훈련입니다. 함께 노력해서 나아가면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날은 찾아옵니다.

61기 모두 장교가 되기 위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충성기초훈련을 모두 잘 이겨내고 선배 생도로서 민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충성기초훈련의 조력자, 기훈지도생도

60기 기자생도 강 준 성

충성기초훈련은 학교에 처음 들어오는 인원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장교로서 임무수행을 위해 적합한 자원들을 선별하여 충성기초훈련이 끝나면 육군3사관학교의 정식 생도로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교하는 개개인이 충성기초훈련을 잘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생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새로운 인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생도를 뽑는 선발 기준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훈지도생도 선발 과정을 궁금해하는 생도들이 많다. 지도생도 선발을 위한 확고한 기준은 무엇인지, 또 지도생도들이 가져야 할 목표 의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6 훈육관(소령 최명호)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Q 훈육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충성기초훈련이란 무엇입니까?

A 충성기초훈련은 가장 힘든 시기이지만, 잘 견뎌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훈련을 진행함과 동시에 민간인에서 생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잘 마무리한다면 향후 2년간의 생도 생활에서 이겨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내적 가치 함양을 통해 학교의 전통을 많이 배우는 시기로, 기초를 닦고 기분을 배우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Q 지도생도 선발 시에 고려했던 기준이 무엇입니까?

A 평상시의 생활 태도, 올바른 인성과 품성도 기본적으로 고려합니다. 본인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시험해보고 부족한 점을 함양할 수 있는 생도를 뽑는 것이 훈육관들의 지도생도 선발 고려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본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생도 중에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생도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에서 과락이 나오지 않을 생도를 선발 하였으며, 체력,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생도들의 역량을 고려하여 선별 인원과 미선별 인원을 구분지었습니다.

## Q 지도생도가 가져야 할 자질은 무엇입니까?

A 지도생도로 선발된 인원들은 본인부터 헌신하고 앞서나가는, 바람직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체교육 시 목소리, 교수법 등이 중요하게 확실히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3학년 생도들은 미숙한 점이 많기에 분대장 생도로 배치하였으며, 기훈 소대장 생도를 4학년 생도로 배치했습니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시에 직무배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데, 4학년 생도들은 3학년 생도들에게 지도생도 임무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 Q 충성기초훈련에서 지도생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 기훈생도들의 동반자이자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밤길 속에서 한 발씩 발걸음을 짚어 어떻게 하면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생도들은 규범과 방침을 준수한 가운데,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과 간 취침은 22시에 해야 하지만, 미흡한 것이 있으면 교육 훈련 준비를 위해 취침 시간을 활용하여 잠시 전파사항을 전달 해주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규정을 모르고 융통성을 발휘하면 사고가 발생하기에 규정을 알고 유연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성과 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의 경우 향후 생도 생활간, 더 나아가 임관 이후에도 주위 사람들에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일지를 통해 장교가 될 역량이 부족한 인원들을 잘 식별해야 합니다.





칼럼 I



중령 민병후  
(사회학처 법정학교수)

## 부하의 신뢰를 얻는 법: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져라!

리더가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부하들에게 리더의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져야

복적으로 발생하고 그때마다 행정기관이 앞에서 실행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하게 되면, 이후에 합리적인 사유 나 논거가 없이 마음대로 기존의 결정

있어서 처음 어떤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처음에 내린 자신의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대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너무 쉽게 자신의 결정을 바꾸거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소대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즉, “그때그때 달라요!” 식의 지휘는 소대원들로부터 불만을 야기하게 되고, 신뢰할 수 없는 소대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풀어갔지만, 앞에서 한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언행일치’와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감이라 할 수 있다. 리더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엄격하게 스스로 책임감을 지녀야 하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부하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너무 쉽게 바꾸거나 하는 등 자신의 말과 행동에 무책임해져서는 안된다.

장차 졸업하고 임관하여 육군의 주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자랑스러운 우리 생도들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다.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법 과목 수업 내용 중에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라는 법 원칙이 있다.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항에서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을 경우, 해당 사항이 동일하게 반

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처럼 권한 있는 기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생도들에게 이 원칙을 설명할 때, 소대장으로서 소대원들을 지휘함에

**SBS에서** 방영했던 ‘웃찾사(웃음을 찾는 사람들)’라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다. 코미디언 정찬우가 유행시켰던 말로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말이다. 팝송 가사를 개그 코드로 활용하여 번역하는 코너였는데 해석이 막히거나 내용이 모호할 때 그 순간의 위기를 가장 쉽게 모면할 수 있는 확실한 유행어였다.

하지만, 이러한 ‘그때그때 달라요!’ 식의 언행은 리더에게는 적절하지 못하다. 리더의 언행·판단은 부하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며,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리더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부하들이 굳이 리더의 언행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을 통하여 상황 속에서의 자기 임무를 판단하고 수행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임무형 지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칼럼 II



대위 신하영  
(인문학처 영어학교수)

## 세상이 주는 두려움 너머의 삶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 6가지 진실

의 목소리를 우리 귀에 속삭인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세상의 거짓 목소리가 왜 틀렸는지, 우리의 참된 가치,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진리라는 창을 통해 환히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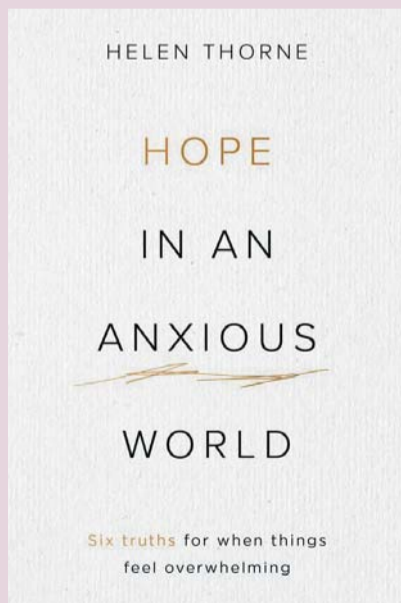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 자괴감, 허탈감 등은 앞으로 장차 부대원들을 이끌고 통솔해야 할 미래 육군의 주역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삶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때 인정받는 참모, 훌륭한 지휘관으로 성장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두려움 너머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법과 방법을 삶에 적용해보며 더욱 빛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아가 부대원 혹은 상급자가 불안으로 인해 씨름할 때에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겸비한 생도들이 되기를 온 맘 다해 소망한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 직장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과 관련된 문제, 어려운 가정사 등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 한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롯하여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로 인해 불안할 수 있는 것이다.

임관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병과 선택, 자대 배치, 가족 혹은 소중한 어떤 이들과의 관계로 인해 불안할 수도, 아직 임관하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앞으로의 군사훈련, 학위교육 등으로 인해 불안하거나 염려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 6가지 진실(원제목 : Hope in an Anxious World - 6 Truths for When Things Feel Overwhelming)

밝은 모습으로 하루를 대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자신만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

게 최근 번역한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잠식당한 우리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불안과 관련된 다른 서적들은 이상적이지만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기법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본 사례들을 탐구함으로써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평가 기준을 빗대어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면 완벽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 것이 분명하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거짓

명예 칼럼리스트 칼럼



김지찬  
(주)IG넥스원 대표이사

**최근 이어진** 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지 2년이 다되어 가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전투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 시, 그 피해와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 안보와 경제에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세계 힘의 균형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불안 속에 자국 안보에 위협을 느끼는 많은 나라들은 국방비 비중을 줄여가던 기존 정책을 뒤집고 다시금 군비 확장과 군수 장비 보유를 증가시키며 국방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생존을 걸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국가들이 전통적인 병력 확장이 아닌 첨단무기체계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에서의 무인화는 원격제어를 통한 무인 체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로봇이나 드론,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그리고 유·무인복합형태(MUM-T)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작전과 임무 수행에 활용될 수 있다. 무인화는 인간을 넘어선 속도, 정확성,

체력 등을 근간으로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군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의 군집 형태로 운용 시에는 전장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국의 많은 기업은 이미 우크라이나-러시아전을 테스트베드 삼아 본인들의 위성 통신망, 초소형위성, 각종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전쟁에서 큰 활약을 펼쳤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에서도 이스라엘은 드론, 무인로봇을 이용한 적 게릴라 전술의 무력

화를 통해 무인화의 효과를 실전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무인 체계를 도입하고 전장 영역을 우주와 사이버로 확장하여 미래 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적성국들과 영국, 일본, 독일 등도 마찬가지로 앞다투어 국방 무인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도 '23년 3월, '국방혁신 4.0'을 목표로 AI 과학기술강군육

성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의 추구를 선포하였다. 이에 발맞춰 육군은 '아미 타이거(Amy TIGER) 4.0'을 시작으로 인공지능과 유·무인복합체계의 활용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해군은 해양 유·무인복합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를 통해 무인 전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군은 유무인 전투비행체계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광대역 네트워크 지휘통제체계 '킬웹(Kill-Web)'을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육·해·공군 모두 전장의 다양한 환경에서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유인전력과 무인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영해 작전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군의 무인화는 이제 미래 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무인 체계의 중요성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인 체계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사람의 직관과 판단력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또한, 사람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결여될 수 있기에 법·규제 측면에서 사람의 책임과 통제가 필수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끊임없이 학습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결국, 무인 체계는 사람과의 공존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군의 무인화가 효과적으로 구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예상된다.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이 기술발전에 대한 수용과 개방된 자세로 앞으로 우리 군의 무인화를 위한 정책과 작전·전략을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무인화, 선택이 아닌 필수

저명인사 칼럼



윤종빈  
(명지대학교정치외교학과 교수, 미래정치연구소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글로벌 사회가 명운(命運)을 거는 새로운 기술혁명이다. 글로벌기업들과 국가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과학기술을 쉼새 없이 따라잡아야 한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인간을 위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의 1·2차 산업혁명과 온라인의 3차 산업혁명을 융합한 'O2O(Online to Offline)'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올 기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너도나도 기술경쟁에 몰입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미 지난 9월에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방안」을 발표했고 세계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인재 양성과 예산 투입, 디지털 권리장전의 수립, 윤리 및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어두운 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문·사회과학적 시각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

적 논의와 공감대가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2002년에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공지능의 대중적 확산의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딥페이크(Deepfake) 영상 등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술의 편리함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여론과 선거의 정치과정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23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인공지능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서 인공지능의 등장이 인류 사회에 가져올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이 등장해 인류를 지배하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시스템의 개발과 알고리즘의 구축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향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과 문화적 가치에 익숙한 사람들이 변화를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로바마(Robama)와 같은 인공지능 정치인의 적극적인 개발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리인의 문제, 즉 대표자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해 발생하는 정치 불신을 회복하고 '스마트 민주주의'와 같이 직접 민주주의를 확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가져올 기대와 함께, 과연 우리의 정치사회가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기술발전은 수단에 불과하고 인류의 목표가 될 수는 없고, 4차 산업혁명 또한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거는 기대와 우려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발전으로 발생하는 부작용과 인류의 위협이다. 국경을 초월해 이러한 우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불공정과 양극화' 현상이다. 새로운 기술발전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또 다른 불평등으로 고통받게 된다. 이러한 불공정과 소외는 우리 사회를 양극화의 수렁에 더욱 깊게 빠져들게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분배, 불공정과 양극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사회

기대와 우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화상 연설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온 일상의 편리함과 생산성의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가짜뉴스로 인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지만, 동시에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2023 트렌드 노트

# 구독, 자신만의 유니버스를 소유하는 방식



최재연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소개팅 앱으로 처음 만난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구독 리스트 보고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해서 그때부터 극호감이었음 ㅋㅋㅋ 친구들하고도 안 비슷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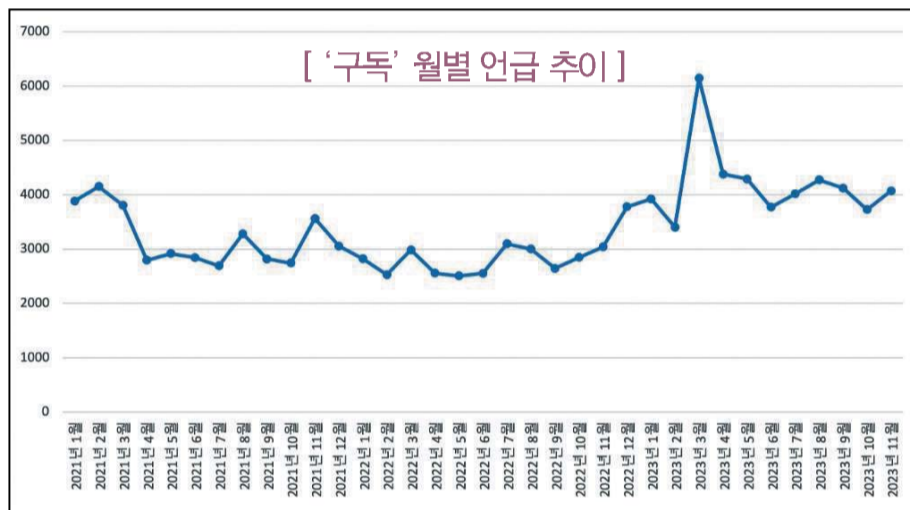
내가 사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내가 구독하는 대상, 나를 구독하는 팔로워 등이 모두 기록되고, 그것들의 집합이 나를 대변하는 시대이다. 그중에서도 구독은 자신만의 유니버스를 소유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

목과 취향을 얻기 위한 개인의 수고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양한 작품을 경험해보며 본인만의 리스트를 만들고, 타인의 리스트도 참조하며 자신만의 취향 유니버스를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단단히 빛낸다. 취향은 보통 디깅(digging)한다고 한다.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원하고, 더 향유하고 더 소유할수록 타인과 차별화돼 고유성을 띤다. 창의가 곧 경제인 지금, 독자적인 취향의 유니버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인 경제자산을 지닌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구독 플랫폼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므로 그들이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취향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같은 플랫폼에 모인 타인의 취향을 보면서 한층 깊게 취향을 디깅한다. 구독은 다양하다. 현재는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를 구독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지지만, 현실 세계

라는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다. 꽃을 구독하는 이유는 꽃 그 자체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안목, 큐레이션 등을 받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구독 플랫폼은 먼저 이용자의 취향부터 확인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제품을 받아보는 형태이다. 이렇게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더해 전문가의 안목을 나의 것처럼 전개할 수 있다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필요를 채우던 기존의 정기배송보다, 필요에 안목이라는 가치가 더해진 구독으로 한층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시작할 수 있다.

### 정체성 구독

알고리즘에 의해 띄워지는 자신의 유튜브 첫 페이지를 타인이 볼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나의 안목과 취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뚜렷한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구독은 결국 나만을 위한 것이기에 때로는 극도로 은밀하다. 싫어하는 콘텐츠를 돈 주고 정기적으로 받아보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구독은 나의 필요와 안목과 취향을 모두 보여주는 확장된 개념이다. 이러한 구독 유형에서 관찰되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독하는 무형의 콘텐츠를 소유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구독 중에는 언제 어디서든 기기만 있으면 마음대로 시청, 감상, 이용할 수 있으니 소유와 다를 바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오늘날의 소유감이란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 감각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순간에 언제든지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좀 더 가깝다. 구독 경제는 이른바 소유의 끝, 경험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표현된다.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물질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나를 드러내기가 어려워졌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커뮤니티, 2021.01.01.~2023.11.30.

었다. 우린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 등의 거대 플랫폼을 구독하며 타인의 취향도 끊임없이 엿보고 교류하며, 새롭게 얻은 취향과 안목을 각자의 보관함과 리스트에 추가하여 유니버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구독의 결제방식은 독특하다. 일정 금액을 매달 지불하고 그 기간만큼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는다. 오늘날에는 우유, 신문을 넘어 옷, 커피, 면도기, 심지어 자동차까지 구독이라는 지불 방식을 활용하는 추세이다. 그중에서도 구독을 말하며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것은 유튜브, 넷플릭스, 책, 블로그다. 여러 산업 및 제품들이 구독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디지털 콘텐츠가 구독 모델에서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이전엔 손에 잡히지 않는 제품에 매달 돈을 지불한다는 발상이 낯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여러 구독 서비스를 합치면 월 구독료 10만 원도 가능해 보인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구독이 취향과 안목에 대한 소유감을 준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왓챠, 티빙, 쿠팡, 밀리의 서재, 플라이북, 유튜브 프리미엄 등등 어느덧 구독하는 게 늘어나 버렸네요. 월에 많을 땐 10만 원 가까이도 나가는 거 같은데, 다들 얼마나 쓰시나요?”

넷플릭스, 유튜브를 비롯한 신개념 구독 플랫폼은 한마디로 해당 영역의 거의 모든 것을 모아둔 장터라 할 수 있다. 덕분에 안

에는 다른 구독 형태도 엄연히 존재한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독의 종류	소유의 종류	얻는 것	목적
물, 식재료, 소모품 등 정기배송	물질의 소유	편리함 자동화 경제적 혜택	생활의 필요를 충족
꽃, 와인, 차 등		취향과 안목	취향의 탐색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권한의 소유	정체성	취향 유니버스

### 필요와 고충을 해결해주는 구독

첫 번째는 정기배송이다. 식재료, 일상 소모품 등 많은 품목이 정기배송 형태의 구독 서비스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24시간 영업하는 집 앞 편의점의 접근성과 새벽 도착을 보장하는 로켓배송의 편리함을 대체하지 못했다. 오히려 '처리의 고충을 해소해주는 구독은 말이 된다. 예컨대 런드리고나 세탁특공대와 같이 빨래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는 소셜데이터에서 반응이 나타난다. 여기에 더해 세탁소 사장님과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충을 하나 더 해결해준다. 이렇듯 구독은 필요를 채워줄 때보다는, 일상에 만연한 고충을 털어줄 여지가 보일 때 더 쉽게 선택된다.

“나 이런 거 좋아하네?” 안목을 얻는 구독 꽃, 와인, 차(tea), 옷 등이 이런 구독 품목에 들어간다. 물성이 있는 부연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기배송과 유사하지만, 안목이

지만, 취향을 기반으로 한 소유는 무형일지라도 나를 표현하는 데 모자람이 없다. 이처럼 권한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 나의 취향 유니버스를 채워가는 데 구독의 역할이 있다. 다만 구독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해지라는 미래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미래를 피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 '록인(lock-in)'이라는 키워드가 이제부터 중요하다. 말 그대로 구독을 통해 기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이용자들이 나가지 않도록 대문을 어떻게 잘 잠글지에 대한 문제이다. 당연히 서비스와 콘텐츠는 훌륭해야 한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스포티파이와 같은 플랫폼들은 압도적인 회원 수와 콘텐츠 양 그리고 오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추천해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람들의 이탈을 막기 어렵다. 구독 이탈을 막으려면 콘텐츠의 우위 외에 경험적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 그 전략은 주로 독점 또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나타난다.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독점 판권을 얻어 제공하면 이 작품을 주기적으로 소비하는 팬들은 <반지의 제왕>이 있는 OTT에 머물게 되고, 해당 판권이 타 OTT

로 넘어간다면 콘텐츠를 따라 이탈할 것이다. 팬덤이 있는 콘텐츠는 'N차 관람, 디깅'이라는 특수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OTT 외에도 최근 많은 기업이 구독 모델의 매력에 눈을 뜨면서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기업들이 어렵한 방식을 주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전을 뽑을 수 있는 메인 서비스 및 콘텐츠가 있느냐이다. 구독료를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명확한 사용처다. 그러므로 모호한 부가적 혜택을 내밀하기보다 경제적 '본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하나의 사용처를 제시하는 편이 현명하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본전은 경제적 혜택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지도 해당된다. 사람들은 삶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도 돈을 쓰지만, 안목 있는 이들이 모인 곳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돈을 (더 가까이) 쓴다. 구독에서 본전이 요인 중 하나라면 사람은 본질이다. 따라서 구독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은 혜택을 모으는 것보다 애호가들을 모으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용자를 구독료를 내는 소비자로 머물게 하지 않고, 취향을 교류하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모일 것이다. 돈 이상의 관계를 약속하는 구독은 이때 가능하다. 사람들과 그들의 유니버스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유니버스를 만들어 하나의 매체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 동문(同門)의 소리 I



예대위 고 국법(3사 5기)  
IK그룹회장실 재직, 성균관대 박사수로

감사한 전화를 받았습니. 후배들을 위해 글을 써줄 수 있겠냐는 전화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군(軍)과 사회에서 느낀 소회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단 생각을 해왔던 터라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의지와 달리 좀처럼 글이 써지지 않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은 많고 지면은 한정적이고...'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 고민이 앞선 탓입니다.

제가 겪은 생도생활에서 후회되는 부분을 찾아 이를 답습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돌이켜 보니 그저 졸업하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부질없이 쓴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추억을 남겼으니 후회하진 않는다며 합리화하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동기생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졸업할 때쯤 보니 성적, 자격증 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서였을까요, 저만 그 자리에 우두커니 남겨진 느낌입니다.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외면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만 전념

## 통제를 통제하는 힘

할 수 있는 시기가 생도시절이었고 그런 여건이 보장된 곳이 사관 학교였음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해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 '통제된 생활을 통제'하지 못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처한 환경을 통제할 힘이 없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1940년대 오스트리아 빈에 살았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로 끌려갔고 부모님과 동생, 아내가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치는 유대인들을 전쟁물자 만드는 노동자원으로 취급하며 쓸모가 없어지면 가스실에 보내 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환경에서조차 나치의 폭압에 어떻게 반응할지 대응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 아침마다 면도하고 식수의 일부를 아껴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이 좋아 보이는데, 나치에게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중요한 노동자원이었으므로 혈액 좋은 프랭클 박사를 가스실로 보낼 이유가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책에선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22년 2월 28일 의무복무를 마치고 대위로 전역해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회장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무척이나 바빠 지냈습니다. 회장님을 보좌하는 부서 특성상 일정이 유동적이었기에 불규칙한 환경을 마주했습니다. 이때부터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괴곤하다는 핑계로 운동과 독서를 게을리했습니다. 의지도, 의욕도 없이 시간에 끌려가는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프랭클 박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바꿀 수 없는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정리정돈 습관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부자리 정리를 먼저 권하듯이 무기력한 정신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은 운동이라 생각했습니다. 05시에 일어나 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몇 시에 퇴근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정 안 되면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병행

했습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을 활용하니 무언가를 읽을 시간도 생기자고요. 매일 아침 여러 매체의 신문을 읽고 독서를 했습니다. 일련의 행동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후로는 어딜가든 책을 챙겨 단 5분, 10분이라도 책을 읽었고 도로 위에 있는 시간도 허비하지 않으려 차 안에서 경제, 인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강의를 청취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책상 앞에 앉아 학교 과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회식 있는 날도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꾸벅 졸더라도 그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끝마쳤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했지만 완독해 쌓인 책, 건강해진 몸, 학위 등을 놓고 보니 꽤나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한 것은 다들 바 없지만요.

다시 프랭클 박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각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길 바라면서도 환경 탓을 하며 포기하는 건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회에 나와 주변을 둘러봐도 모교만큼 짜임새 있는 교육 커리큘럼과 자기계발 여건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건에 더해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강사진에게 운동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설명 그런 곳이 있다고 한들 그곳에서 리더십과 인내심을 배우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정과 의리 넘치는 동기가 옆에 있다는 것은 덤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사관학교에서의 시간은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며 모든 방면에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인생의 절치턱마 기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을 축적하는 것이 높고 위대한 것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거시적으로는 느긋하게 바라보고 미시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몇 년 후에는 성공한 삶을 원하지만 지금 당장 노력하는 사람 찾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환경과 타협하지 말고 상황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매일 노력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성취는 꾸준한 노력에 근거합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매일을 성실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든 결국 그렇게 쌓인 시간의 결과가 자기 인생을 만들게 될 테니까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영광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만큼의 실수와 후회도 따랐습니다. 굴곡은 있을지언정 차츰 나아지는 인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과 방황을 붙잡고 단단한 확신으로 우직하게 걸어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행동이 늘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모교를 잊은 적 없고 후배 여러분이 언제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합니다.

## 동문(同門)의 소리 II



중위 고 승 영(3사 57기)  
제1보병사단수색대대

23년 3월, 전문유격 공고문을 처음 접했다. 단순히 RANGER라는 문구가 새삼 멋있었다. 관심이 생겨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1% 특급전사,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라"는 문구가 나를 자극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체력에 자신 있었던 필자는 주저 없이 지원했다. 입소자격 평가는 총 3종목으로, 레그턱(매달려 다리 들어올리기), 하천수영(평영), 5km 군장뺨걸음(15kg 공격군장)이다. 합격 기준은 레그턱 15회 이상/2분, 하천수영(평영) 100m 완주, 5km 군장뺨걸음 40분 10초 이내 완주다.

## 1% 특급전사,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라

생도 시절 2년 내내 특급유지, 문화체육활동수영부에서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하여 뽕겉음과 수영은 제한사항이 없었지만, 근력이 부족한 필자는 레그턱이 가장 큰 벽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출근 전 뽕겉음과 레그턱을 실시하였고, 일과 시간 내 체력단련 시간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다. 일과 후에는 매일 수영장에 다니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준비했다. 그 결과, 레그턱은 21회, 수영 완주, 5km 군장뺨걸음 30분이라는 결과를 받아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번 기수는 특전·특공·수색 인원들만 입소할 수 있었고, 해병대 특수수색대 인원도 함께였다. 전문유격 과정은 모든 순간이 평가였고, 매주 퇴교 인원이 발생하였다.

전문유격 과정은 총 5주 차까지(전투기술, 산악, 하천, 종합) 구성되어 있다. 1주 차인 전투기술 과정은 누구나 생각하는 '유격훈련'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된다. 유격 체조를 주로 하며, 장애물 극복 등의 종목들도 같이 실시한다.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주이다. 2주 차인 산악 과정은 등반과 하강으로 나뉜다. 등반은 암벽을 오르는 것을 말하고, 하강은 반대로 암벽을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 등반/하강에는 매듭법이라는 세부항목을 실시하는데, 이는 등반, 하강 시 꼭 필요한 것이며 교장 설치 간 필수적인 항목이다. 교장 설치하는 하강 시 줄을 암벽 위에 설치하는 것이다. 산악 과정은 교장 이동만 제외한다면 나름 재밌는 과정이었다. 3주 차인 하천 과정은 '만경대'라는 하천에서 실시하게 된다. 일주일 동안 야지에서 텐트 설치 후 생활하는데, 여기서는

벌레에게 물리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평소 수영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라면 문제없이 합격할 수 있지만, 전 과정 중 하천 과정이 제일 합격률이 낮았던 과정이다.

하천 과정까지 마쳤다면, 마지막 종합 과정은 야간 방향탐지, 야간 독도법, 화력 유도, 첩보 보고 등 여러 가지의 요소를 실시하는 과정이다. 종합 과정은 체력과 방향 유지를 토대로 약 200km를 걷는데, 마지막 행군인 지리산 등반(100km)도 포함되어 있다. 지리산까지 등반한다면 전문유격 과정은 마무리된다.

필자가 글을 통해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생도들의 도전의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생도들의 체력단련 필요성 강조다. 필자는 생도 생활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했으나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전문유격 과정까지 수료할 수 있었다. 누구든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도전한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로 필자는 생도 생활 내내 체력을 3종목 특급을 놓친 적 없이 체력을 유지하였다. 야전에서 체력검정은 성실함의 지표이다. 꾸준한 노력으로 체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도 생활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체력, 영어 공부, 자격증 등을 준비해서 임관한다면 부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욕심이 있고, 생각하는 그림이 있다면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길 바란다.

**'추억의 사진 응모 이벤트'  
당첨자 발표**



**황군식 (3사 33기)** 그리운 97년 충성제의 추억



**황군식 (3사 33기)**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절의 추억이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정현민 소령 (3사 40기)**  
3학년 2학기, 같이 살았던 동기들과 생활관에서 찍은 사진



**백주현 대위 (3사 55기)**  
보고싶은 55기 기계공학과 동기들,  
그때처럼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하자!



**송태권 중령 (육사 63기)**  
2022년, 봄꽃이 만발한 호국정의 혼육관들...



**김도현 중위 (3사 57기)**  
가을 호국정은 인천에서도 보려옵니다.



**이연실 사관생도 (3사 59기)**  
어린 시절 이후, 14년 만에 돌아온 사관학교(첫째 줄 노란 옷)



**김지현 소위 (3사 58기)**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면회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 26기 고창준 장군, 제2작전사령관 취임

지난 10월 31일, 26기 고창준 장군이 2작전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1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이상호 동기회장 등 26기 동문 70여 명이 참석하여 상호 간 끈끈한 동기에를 보여

주었으며, 대구·경북 동문회에서 김문중 회장 등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5만 동문을 대신해 지휘봉을 전달하며 동문의 위상을 높여준 고창준 장군에게 감사하며 국가와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3사 총동문회



### 2023년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지난 11월 7일, 계룡 체력단련장에서 2023년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총동문회 창립 후 2008년에 이어 15년 만에 2번째로 개최된 뜻깊은 대회다. 대회는 기수별 2~4명씩 총 21개 기수, 총 89명의 선수가 선·후배로 혼성 편성되어 진행되었다.

또한, 동문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찬조만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수익금 300만 원을 총동문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여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단체전 우승은 장년부 17기, 청년부 28기가 차지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15년 만에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참여와 응원을 보내준 동문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며, "동문간 세대를 뛰어넘어 더욱 화합 단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3사 총동문회



### 16기 동기회 연말 정기총회

지난 12월 1일, 총동문회관에서 16기 동기회의 23년 연말 정기총회가 열렸다. 동기회장은 1년 동안 고생한 사무총장과 16기 동기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16기 동기회는 동문 발전 및 회관 유치를 위해 소중히 사용해줄 것을 부탁하며 100만 원을 총동문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다.

3사 총동문회



### 30기 남진오 동문, 제21보병사단장 취임

지난 11월 9일, 30기 남진오 장군이 3사관학교 생도대장을 역임하고 소장 진급과 함께 제21보병사단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총동문회장 등 총동문회 임원을 비롯한 30기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5만 동문을 대신하여 지휘봉을 전달하고, 중동부 전선을 첩통같이 지키고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는 최고의 부대가 되기를 기원했다. 남진오 장군은 "성원해준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3사 총동문회



### 호삼회(虎三會) 연말 단결행사

지난 11월 23일, 공군호텔에서 호삼회(虎三會)의 연말 단결행사를 거행했다. 호삼회는 3사 출신으로 과거 보안사, 기무사 등에서 근무하였던 동문들의 친목 모임으로, 연말을 맞아 친목을 다지고 새로운 회장(16기 예원해)도 선출하

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동분회관 발전기금 기부와 더불어 총동문회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한 호삼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으며, 호삼회는 앞으로도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3사 총동문회



### 제7군단 동문 지휘부대 방문

지난 11월 30일, 총동문회 임원진은 김호복 장군(27기)이 군단장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제7군단을 방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안보 상황이 엄중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문이 지휘하는 부대의 장병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장병 격려금 3백만 원을 전달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실전적인 교육 훈련으로 많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호복 장군과 군단 장병들에게 감사하고 7군단 전 장병들의 안전과 승리를 기원했으며, 김호복 장군도 실전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고 세계 최강의 기동군단으로서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3사 총동문회

### 19기 동기회장이 · 취임식



지난 11월 15일 공군호텔에서 박주왕 총동문회장과 육사 39기, 학군 21기, 학사 3기 회장 등 초청 인사와 19기 동기회 임원 및 각학육대 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기 동기회장이 ·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임하는 박병남 21대 동기회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임관 4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한 동기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낼 것을 약속했다.

취임하는 김용욱 22대 동기회장은 전임 회장단의 업적을 계승하고 동기회와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이 · 취임하는 동문회장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총동문회가 추진하고 있는 '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 장기복무 관련 법안' 추진 경과 설명과 5성급 호텔형 총동문회관 확장을 위한 월 1만 원 납입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3사 총동문회



### 인천·부천지역 동문회 정기총회 및 동문회장이·취임식

지난 12월 3일, 부평역사 5층에서 인천·부천지역 동문회 정기총회 및 동문회장이 · 취임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인천·부천지역은 3,000여 명의 동문이 거주하고 있는 동문 밀집 거주지역이다.

이날 행사는 약 4년 6개월 동안 동문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문용현(21기) 동문이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동문회장인 김동길(22기) 동문을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로 총동문회장, 지역 정치인, 장교연합회, 학군, 학사 장교 지역 회장과 200여 명의 동문, 동문 가족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그동안 동문회장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이임하는 문용현 동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공로패를 수여하였으며, 새로 취임하는 김동길 동문에게는 임명장과 동문회기를 이양하며 동문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3사 총동문회

# 학교 발전재단 소식

## 2023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3. 11. 1 ~ 12. 20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 (총 기부액), 단위 : 만원

### 총 자산 94억 2천만원(2023. 12. 20 기준)

#### ■ 학교발전 동참특별기부자('23. 11. 1~12. 20 기부현황)

김호길(육사#48 281), 두석주(육사#51) 2230, 류지민(육사#52) 213, 이우진(육사#54 299), 변용성(육사#58 2131), 이주실(육사#58 2108), 김대영(육사#59 2198), 문준혁(육사#59 2104), 홍희중(육사#61) 2127, 홍인재(육사#68 2100), 문준희(육사#67) 2170, 김홍재(육사#71) 412, 한덕수(학군#26 2137), 남기웅(학군#29 2142), 구희곤(학군#32 4162), 임문택(학군#34 2136), 송재재(학군#37) 21154, 이정훈(학군#38 2114), 정우람(학군#46 2148), 홍현신(학군#48 2150), 유성국(학군#54 215), 권영훈(학군#56 2118), 최재호(학사#29 21154), 임도현(학사#54 2133), 구주현(학사#55 2156), 임채훈(학사#55) 1116, 성현애(학사#56 2176), 심정현(학사#58 2164), 최윤정(간사#38 2169), 송소연(간사#58 2150), 전진석(군#28) 100(100), 문길섭(준위) 212, 송승현 원사 211, 강필승(군무원) 218, 이수진(군무원) 240, 정시연(군무원) 251, 최지욱(군무원) 215

#### ■ 졸업생 가족('23. 11. 1~12. 20 기부현황)

조경해(#45 황정태 모) 5(945), 백인숙(#47 ○○○ 모) 2(65), 성동모(#50 성열환 부) 2(260), 안순봉(#51 박상웅 모) 20(1,240), 김현미(#52 오치원 모) 1(76), 이영미(#52 황성규 모) 3(379), 임성영(#52 임강민 부) 2(10), 정정화(#52 조강현 모) 1(369), 박일심(#53 정필승 모) 2(172), 조정숙(#53 유영빈 모) 2(178), 서완수(#55 서지찬 부) 2(136), 정원섭(#55 정준영 부) 2(146), 송학빈(#56 송용준 부) 2(92), 정희숙(#56 배웅휘 모) 20(1,450), 조재훈(#56 조성진 부) 60(590), 김경남(#57 김민우 모) 1(38), 김근택(#57 김광진 부) 4(82), 김순말(#57 김준모 모) 2(76), 박경석(#57 박찬환 부) 2(88), 양내석(#57 양철민 부) 10(400), 오유미(#57 김주현 모) 4(86), 이동희(#57 박찬환 모) 6(119), 지마리아(#57 김대현 모) 10(325), 김현영(#58 김범수 부) 10(115), 최걸순(#58 최승환 부) 2(45), 한만근(#58 한현우 부) 2(74), 현석호(#58 현민석 부) 6(9)

#### ■ 재학생 부모('23. 11. 1~12. 20 기부현황)

##### ▶ 4학년부모

김애영 6(66), 강병원 100(300), 임승남 4(44), 장연복 1(22), 정신 2(22), 정영남 2(42), 조철만 6(32), 최형준 2(18), 현석호 6(9)

##### ▶ 3학년부모

손학민 20(180), 임성영 2(10), 장은심 20(100), 정미경 10(55), 정지한 10(40), 홍영옥 1(10), 홍혜숙 1(10)

#### ■ 졸업생('23. 11. 1~12. 20 기부현황)

- ▶ 171 김용하 4(212), 남준호 5(1,509), 이기권 1(565), 임관택 2(108), 최익환 2(110)
- ▶ 271 윤경혁 10(610) ▶ 371 장영집 10(300)
- ▶ 971 권영호 5(555), 김현기 3(1,263), 윤지찬 3(222), 이환희 5(120), 최병학 5(1,370)
- ▶ 1371 문성목 10(510)
- ▶ 1471 김길영 1(126), 김종환 1(83), 안호 20(2,250), 이순진 10(1,010), 이웅진 4(490), 이종학 4(155)
- ▶ 1571 김성연 2(554)
- ▶ 1671 이영호 1(154), 이종우 1(187), 황병태 2(336)
- ▶ 1871 구연덕 1(157), 금융백 6(654) 이기환 2(53), 진기상 4(1132)
- ▶ 1971 김익수 2(237), 박주왕 10(150), 이종형 6(338), 이창호 6(660), 홍성식 2(223)
- ▶ 2071 박권순 2(202), 서정열 1(520)
- ▶ 2171 신철수 4(1,322), 이정문 2(264)
- ▶ 2271 이진성 4(269), 정경호 1(72), 조태환 4(195), 천병규 4(504), 홍성덕 10(271)
- ▶ 2371 김태일 2(258), 신영찬 2(99), 오승욱 2(318), 정철재 2(235), 최승환 1(34), 허강수 4(335)
- ▶ 2471 곽종만 4(108), 권오봉 1(241), 김도현 2(260), 김성래 2(86), 김지영 30(1,068), 모경원 2(255), 박세철 2(98), 방성대 6(193), 이문희 2(120), 정정현 2(219)
- ▶ 2571 문봉성 4(241), 배현국 5(40), 장광선 20(546), 장무수 2(77), 전희준 2(333), 조재희 1(150), 홍은표 1(226)
- ▶ 2671 고창준 12(416), 구지충 2(32), 김준식 2(86), 김택환 2(34), 박윤옥 2(133), 서재원 5(101), 신태영 1(120), 유근환 1(63), 유재규 2(57), 이덕우 1(154), 이도한 2(34), 이용환 10(10), 이완주 6(202), 이인갑 2(34), 이재덕 2(34), 이태인 4(118), 임우영 2(272), 임준호 2(34), 장용빈 2(151), 전용범 2(34), 정일희 2(34), 표기범 2(34), 허용도 2(44)
- ▶ 2771 김관수 6(163), 김덕중 2(96), 김성오 4(86), 김용범 2(68), 김지덕 2(50), 김호복 8(369), 나현민 2(214), 석수열 2(73), 원희문 1(329), 이희순 1(267), 정월균 1(71), 전태환 100(1,500)
- ▶ 2871 권승영 1(39), 권양철 1(136), 박용섭 4(229), 유정일 2(63), 윤석찬 1(168)
- ▶ 2971 김강식 2(273), 김태영 4(86), 박성훈 2(181), 박태용 2(160), 이상일 2(216), 임성호 2(192), 정해균 2(2), 현태식 2(178), 황재식 1(9)
- ▶ 3071 김광석 4(58), 김동희 12(150), 김홍빈 2(27), 김효성 2(72), 남진오 2(83), 이병길 1(47), 이진 1(176), 임상달 2(147), 주경호 1(141), 홍성범 2(65), 함민호 2(128)

- ▶ 3171 권동호 4(116), 김영태 2(209), 김태희 2(37), 김희열 2(254), 염항수 2(164), 이재준 1(238), 이훈복 2(76), 최대집 2(74), 전경인 2(61)
- ▶ 3271 권관덕 2(368), 김봉용 2(141), 사인우 2(163), 이태현 2(52), 주정용 2(12)
- ▶ 3371 권해욱 2(74), 김남식 2(191), 김성근 4(200), 김현규 4(448), 남석진 2(168), 신성근 2(11), 안경일 2(262), 안준영 6(203), 이정표 6(152), 조용화 2(45), 조재봉 2(138), 홍종원 1(56)
- ▶ 3471 김기수 2(208), 김민오 4(40), 김운성 1(72), 김홍식 6(519), 이우이 2(432), 이재원 1(1), 임창훈 2(108), 정웅민 3(235), 정창근 2(134), 정준환 2(84), 조수창 1(208), 홍영기 2(53)
- ▶ 3571 김경철 2(37), 김수열 2(97), 박병준 6(392), 박상우 2(95), 박상천 2(56), 박시근 2(211), 송명성 4(116), 이문희 2(177), 이호순 6(94), 은명훈 4(20), 임창규 2(135), 장춘삼 2(172), 전성광 2(66), 정병삼 2(179), 정영석 2(133), 정호준 4(150), 하중수 2(53), 한중훈 4(423)
- ▶ 3671 김도희 4(110), 김동혁 2(117), 김명규 1(65), 김현2(156), 박광석 1(5), 양현승 2(242), 이광희 2(178), 임중수 2(98), 장세호 2(229), 정우철 2(164), 조동근 2(245), 진연수 2(189)
- ▶ 3771 강성봉 2(195), 김양훈 6(321), 김충기 2(201), 김홍년 2(260), 노진철 2(174), 문장권 2(48), 송석봉 4(207), 송용섭 2(341), 엄태환 2(18), 육원호 2(160), 이관모 2(166), 이원형 4(331), 임원철 2(181), 정우진 2(98), 정태욱 2(168), 최정호 2(66), 함성규 1(131)
- ▶ 3871 모을하 2(259), 문정민 2(144), 문현성 2(257), 서성걸 2(101), 이경식 2(209), 위재익 4(129), 정한욱 2(236), 함기훈 2(112)
- ▶ 3971 권웅 1(71), 김의진 2(153), 김민경 2(111), 김지훈 2(139), 박철근 2(147), 송창현 4(167), 심용운 2(116), 양운차 2(94), 이대화 2(239), 이웅렬 1(134), 장동준 4(113), 정대겸 2(54), 최현철 2(300)

- ▶ 4071 구자운 4(226), 김백린 2(226), 김영우 6(328), 김우형 5(62), 김중욱 2(67), 김형수 2(203), 남태근 2(62), 박상규 2(80), 박진하 2(119), 송석준 2(164), 유헌선 2(110), 이호연 10(828), 이훈석 2(86), 최창규 2(122), 하성남 5(52)
- ▶ 4171 권영철 2(93), 김석진 10(378), 박한지 2(213), 방현욱 2(103), 손종득 2(121), 임성은 4(173), 전준상 10(337), 정기채 2(213), 최민규 4(165), 최지능 2(236), 홍학현 6(64)
- ▶ 4271 강구환 2(44), 강재석 2(131), 강정희 2(180), 공광석 2(86), 김동우 2(154), 김동진 2(123), 김용민 2(90), 박용준 6(112), 박호찬 2(180), 손병현 2(198), 윤광일 2(36), 윤희철 2(174), 이기욱 2(121), 이승운 2(180), 이용학 1(182), 정만기 2(173)
- ▶ 4371 강민식 4(294), 김용태 2(119), 김민중 2(264), 노창래 2(71), 박희영 2(87), 배동직 6(220), 백두산 4(290), 엄태섭 2(72), 이남익 1(89), 이도훈 2(158), 이용희 4(277), 이효선 2(110), 최진호 4(139), 허광석 2(119)
- ▶ 4471 김대는 2(131), 김승돈 4(50), 권영혁 2(84), 서동준 2(166), 엄태천 2(119), 오승우 6(121), 이민재 2(158), 이영민 2(167), 이희성 4(193), 최재근 2(98), 황재혁 1(56)
- ▶ 4571 권기호 2(161), 김동호 2(169), 김성수 4(161), 박영일 2(164), 박지훈 2(112), 서석관 2(190), 신유철 2(154), 이인권 2(109), 이진희 4(182), 정재현 2(165), 정진우 2(166), 채희용 2(144), 최충수 1(167)
- ▶ 4671 강승웅 4(310), 권지민 2(40), 김대영 2(67), 김명철 2(153), 김정렬 2(153), 김정호 2(270), 김정훈 2(17), 김진용 2(187), 박수만 2(59), 백인정 2(153), 송원상 4(254), 오기리 2(151), 이상운 2(153), 이신화 6(411), 이수원 2(153), 이진철 2(144), 정종택 6(461), 조광연 2(91), 조수빈 2(115), 차승우 2(115), 표상열 2(153), 한영인 2(153), 홍한표 2(144), 황순창 2(149)
- ▶ 5971 이용훈 10(105)

▶ **지면제한으로 47~58기 기부현황을 기재 못한점 양해바라며**  
[www.kaayf.or.kr](http://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도  
학교발전기금을  
학교와 생도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나요?



육군3사관학교 발전재단은 11월 16일(목) 2023년도 주요사업 결산과 2024년도 예산편성, 정관계정을 위한 정기이사회를 이창호 이사장 주관으로 3사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 2024년도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목적사업계획

구분	사업명	편성(원)	비고
생도장학금 (1억 9,000만원)	해외견학 장학금	160,000,000	국외외별도, 4학년(1인 균등지원)
	동기유발 장학금	15,000,000	성적우수, 성적향상, 목표달성
	학점교류 장학금	15,000,000	서울대, 포스텍, 경북대 출강생도
입시홍보 (1억 1,950만원)	SNS입시광고	60,000,000	유튜브, EBS 영상물, 인스타그램 등
	대학방문홍보	6,000,000	전국 7개 권역 지원
	고교홍보활동	40,000,000	고교출장비, 기념품, EBS교재광고
	예비생도교육	9,000,000	1박2일(여비, 식비, 교재)
교육증진 (5,900만원)	학교달력제작	4,500,000	학교홍보달력 가공비 지원
	국외유학추진	25,000,000	프랑스 육사 3사생도 유학
	교육훈련추진	10,000,000	생도훈련/교육재료(국비미지원)
	외부강사초빙	3,000,000	군예산(강사료) 부족분
	학술경연참가	3,000,000	학술논문대회참가 생도
	교수연수지원	8,000,000	국외연수/학술대회(교수)
	학교발전유공자포상	3,000,000	학교간부입시/홍보 유공
	생도역량강화	7,000,000	생도자원, 발표력, 군경연지원
	목적사업계	368,500,000	2023년 295,500,000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청년인구 감소와 군간부 선호도 저하의 환경하에서 3사생도 입시홍보 향상방안 및 2023년 학교발전기금 사용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2024년도 학교발전기금의 선택과 집중에 대하여 다각적인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2024년 예산편성은 학교발전세미나 결과와 생도훈육, 학위교육, 입시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학교주요직위자로 구성된 당면직 이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2024년도 학교발전기금 목적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3억 6,850만원으로 의결하였다.

## 2023년도 기부금 영수증(세금정산용) 등록 및 발급 안내

방법	요령
• 연말정산간소화·전자기부금영수증 등록신청 연락	• 3사관학교 발전기금을 기부한 모든 분(단체) 가능 • 3사 47~59기 중 기부하고 간소화 서비스를 작년여 제공받은 분들은 별도 자료 제출 불필요(2023년도 신규 참여자만 신청요망) • 주민등록번호 통보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기능 ※ 054) 330-3182 (군) 952-3182
• 카카오페이 이용 연말정산간소화 신청 메시지 보내기	• 카카오페이에서 '육군3사관학교발전기금' 검색 후 친구추가하기 하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신청
•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접속 후 직접 출력	• <a href="http://www.kaayf.or.kr">www.kaayf.or.kr</a> 접속 후 영수증 발급하기 ○기부자 인적사항 입력(2023년도) ○파일인쇄 단, 스마트폰에서는 불가, PC에서만 가능
• 우편 및 메일 발송	• 재단사무국 연락 후 우편 및 이메일 요청

발전기금  
참여 안내

###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 정보수정 희망시에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054) 330-3180, 3182

